

교육부·외교부·아태교육원, 제11회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 개최

- 8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전 세계 350여 명의 세계시민교육 관계자 참석
- 인공지능(AI) 확산 속 인간의 존엄과 평화 가치를 교육 중심에 세우는 계기 마련
- 국내 청소년 대상 '세계시민 온(ON) 포토에세이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외교부(장관 조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원장 김중훈, 이하 '아태교육원')과 함께, 8월 26일(수)부터 27일(목)까지 '제11회 세계시민교육 실천과 교육법(페다고지)을 위한 국제회의(이하 '회의')'를 개최한다.

*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가 회원국 간 세계시민교육 확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이번 회의는 '흔들리는 세계 속 세계시민교육: 인공지능(AI) 시대, 인간적 가치를 다시 중심에 두다'를 주제로 열린다. 전 세계 교사와 연구자, 교육정책 입안자, 국제기구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여한다. 2016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교육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회의 첫날은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조형화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의 개회사, 천 천 유네스코 교육사무총장보의 축사로 문을 연다. 이어 홍콩대학교 카이밍 청 명예교수가 '격동의 시대, 인공지능(AI)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후 교육·환경·외교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역할과 과제 등을 탐색한다.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 수상자들이 인터넷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청년 평화 활동 등 현장의 교육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 유네스코 국제상 중 하나로,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을 통해 2024년 세계시민교육 분야의 국제상으로 최초 제정

둘째 날에는 참가자들이 각자의 교실 환경에 맞는 미래 교육을 직접 설계해 보는 참여형 공동 연수(워크숍)가 진행된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교사의 역할 변화, 혐오와 갈등에 대응하는 교육법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마지막으로 국내 청소년들이 사진과 글로 세계시민의식을 표현한 '지금, 세계시민 온(ON) 포토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을 열어, 우수 작품을 제작한 청소년들을 격려한다.

'세계시민교육(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세계 평화, 문화 다양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현재 유네스코 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핵심 교육 의제이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이 교육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한편, 정보의 편향과 디지털 격차 같은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국제회의가 인간의 존엄과 평화의 가치를 교육의 중심에 세우고, 세계 각국의 소중한 경험을 교육 정책과 교실 현장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형화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은 "급변하는 요즘 시대 인공지능(AI)은 빠른 답을 주지만 가치판단이나 윤리적 결정을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공감, 연대, 비판적 사고 등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중심의 가치 강화가 필요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연대를 교육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외교부와 교육부는 세계시민교육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1. 제11회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 개요
2. 주요 참가자 정보

담당 기관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 국제교육정책담당관	책임자	과장	안웅환 (044-203-6752)
		담당자	장학관	강혜영 (044-203-6760)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책임자	과장	김혜미 (02-2100-7573)
		담당자	외무행정관	이동욱 (02-2100-7550)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연구개발실	책임자	실장	지선미 (02-774-3981)
		담당자	선임전문관	이지현 (070-8856-7971)

대한민국
지적브리핑

대한민국
대체불가



붙임 1 제11회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 개요

□ 개요

- (주최기관) 교육부, 외교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협력기관) 유네스코, 유네스코 마하트마간디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충남대 BK21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 양성사업단
- (일시·장소) 2026년 8월 26일(수) ~ 27일(목), 더 그랜드 롯데 서울
- (참가) 전 세계 교육자, 세계시민교육 전문가·실천가, 교육정책 입안자·전문가,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350여 명
※ ('24.) 28개국 291명 참석, ('25.) 50개국 350명 참석
- (회의주제) 흔들리는 세계 속 세계시민교육: AI 시대, 인간적 가치를 다시 중심에 두다

□ 세부프로그램 [안]

1일차 (8월 26일 수요일)	
시 간	세부 프로그램
08:30-09:30	참가자 등록
09:30-10:40	개회식 - (개회사) 설세훈(대한민국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 (개회사) 조형화(대한민국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 - (축사) 원 천(유네스코 교육 사무총장보) - (환영사) 김종훈(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 기조연설. 격동의 시대, 인공지능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카이밍 청(홍콩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단체사진
10:40-11:10	휴식(커피/차 제공) 부대행사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 휴먼라이브러리 및 참여형 부스)
11:10-12:40	기조 세션 1. 전쟁, 장벽, 그리고 알고리즘: 흔들리는 세계를 진단하다 • 미르 마틴(유엔대학교 물·환경·보건연구소 지리공간·기후·인프라 분석 프로그램 매니저) • 데니스 응우옌(위트레흐트 대학교 선임연구원) • 클레멘트 아디베(드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이경미(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좌장 : 나우신 아드난(파키스탄 편자브주 정부 학교교육부 정무차관) 이 세션은 갈등의 심화, 이념적·디지털 격차의 고착화, 만연한 환경 위기와 AI 가속화 및 상용화와 관련된 최신의 주요 글로벌 도전 과제들을 살펴봅니다. 점점 더 파편화되어 가는 세계 속에서 인간적 가치를 다시 중심에 두기 위한 교육, 특히 세계시민교육의 역할에 대해 논의합니다.
12:40-14:00	점심식사

1일차 (8월 26일 수요일)		
시 간	세부 프로그램	장 소
14:00~15:30	기조 세션 2. 세계를 지탱하는 힘: 숲과 거리의 목소리 - 조셉 브라이트 말레켈라(변화를 위한 아프리카 리더십 이니셔티브 사무총장) - 콘스탄사 몬테로 아리게(테나 숲학교 공동설립자) 좌장 : 조대훈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이 세션은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UNESCO Prize for GCED)의 첫 수상 기관인 탄자니아의 '아프리카 리더십 이니셔티브 포 임팩트(ALII)'와 에콰도르의 '보스케 에스쿠엘라 테나(Bosque Escuela Tena)' 관계자의 발표와 대담으로 구성됩니다. 본 세션은 세계가 혼란과 분열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간적 가치'를 다시 중심에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각도로 탐구합니다. 동아프리카에서 혐오 발언과 사회적 편견화에 맞서 나가는 청년 평화 네트워크, 그리고 선조들의 지혜와 생태적 소속감에 뿌리를 둔 아마존의 숲 학교 이야기를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볼룸
15:30~16:00	휴식(커피/차 제공) 부대행사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 휴먼라이브러리 및 참여형 부스)	로비 에메랄드룸
16:00~17:30	기조 세션 3. 인간을 넘어, 인간으로: 세계시민교육, 지구, 그리고 공동의 미래를 위한 대화 - 에바이데 퀸 오미우누(에바이드베키 이니셔티브 사무총장) - 이영운(싱가포르 사회과학대학교 성인학술연구소 전 소장) - 피터 은구레(주유네스코 케냐대표부 특명전권대사) - 스기무라 미키(소피아대학교 총장 & 유네스코 인간존엄·평화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 석좌교수) 좌장 : 오비조프 아기남(유네스코 마하트마 간디 지속가능발전·평화교육센터 원장) 이 세션은 교육·환경·외교·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대표들이 모여 '문제 진단'을 넘어 '실천적 책임'을 모색합니다. 첫째 날 논의된 시대적 균열을 바탕으로, 세계시민교육이 오늘날 요구에 부응하는 범지구적 규모로 작동하기 위한 과제를 던집니다. 부처와 분아, 나아가 교육 정책과 환경·생태적 우려 사이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방안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밀도 높은 대화와 마침 발언으로 이어지는 이번 세션은, 공동의 다짐을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가로막는 현실적 장애물까지 솔직하게 진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크리스탈볼룸
2일차 (8월 27일 목요일)		
시 간	세부 프로그램	장 소
08:30~09:30	참가자 등록	로비
09:30~11:00	분과 세션 1. 균열과 마주하다: 세계시민교육이 직면한 도전 이 세션은 오늘날 세계시민교육이 직면한 직·간접적 도전 과제들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1A) 나는 무엇을 알게 하는가: 지식 권력의 재편과 세계시민교육 - 김명신(LG AI연구원 정책수석) - 디비나 프라우 메이그스(소르본 누벨 대학교 명예교수) - 잭 웹스터(오글랜드대학교 교육연구원 & 교육전담교수) - 딜런 레이(싱크소 소장) 좌장 : 이양숙(유네스코 아태교육원 대외협력홍보실) (1B) 교실은 무너지지 않는다: 균열의 시대, 세계시민교육 교육자의 자리 - 마틴 올리버(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교육공학 분야 교수) - 임재일(용인 흥덕초등학교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 겸임교수) - 사메르 알-수와이드(이들라브 시리아 교육부 교육장학관 & 교원연수 강사) - 리비 가일스(뉴질랜드 글로벌연구센터 소장) 좌장 : 로웨나 히바나다(필리핀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소장) (1C) 우리와 그들 사이: 혐오 갈등, 배제에 맞서는 세계시민교육 - 남상욱(웹 에이전시 와팩토리 영화프로듀서 및 CEO) - 리사 B. 스페니어먼(애리조나 주립대학교 교수) - 압둘 가니 오야이포(평화·인권 활동가) - 미렌 곤살레스발스 카바도(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평화교육과 담당관) 좌장 : 박순용(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크리스탈볼룸

2일차 (8월 27일 목요일)		
시 간	세부 프로그램	
11:00~11:30	휴식(커피/차 제공) 부대행사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 휴먼라이브러리 및 참여형 부스)	
11:30~13:00	분과세션 2. 균열을 매우다: 세계시민교육 공동체의 실천과 대응 이 세션은 분열된 우리 사회를 잇는 마중물이 되어준 현장 중심의 혁신적 세계 시민교육 사례들을 공유합니다. 이론적 논의를 넘어 삶 속에서 차근차근 뿌리내린 생생한 실천 현장을 조명하며, 전 세계 활동가들과 지역사회가 만들어낸 다채로운 실행 모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A) 세계시민교육 교육자 양성: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 아미라 아티라 아미르 야지드(마라 공과대학교 강사) - 정성경(충남대학교 연구교수) - 가오리 기쿠치(쓰쿠바대학교 인간과학부 조교수) - 칼 O. 델로모스(필리핀 세계시민교육협력센터 부센터장) 좌장 : 박환보(충남대학교 교수) (2B) 서랍 속에 잠들지 않는 교육: 현장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자료 - 도라 시무노비치(유럽 슈타이너 발도르프 교육협회의 옹호·홍보 코디네이터) - 엄정민(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교육연구실장) - 안수정(충렬고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 자블론벵 멜리보예프(우즈베키스탄 국립교육센터 부센터장) 좌장 : 아론 베나벳(뉴욕주립대학교 올버니 캠퍼스 교육정책·리더십학과 글로벌 교육정책 교수) (2C) 세계시민교육의 연결망: 파트너십과 네트워크가 만드는 변화 - 타카시 치바(고리야마 하가시 고등학교 교사) - 웨이 장(유네스코 학교네트워크 국제센터 사무총장) - 신재은(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정책센터장) - 디타 둘레시요바-트리니다데(글로벌교육네트워크유럽 혁신·지원실장) 좌장 : 제퍼슨 플란티아(독립 연구자)	
13:00~14:10	점심식사	
14:10~15:40	분과세션 3. 함께 그려보다: 세계시민교육 공동 설계 워크숍 이 세션은 교육 현장의 세계시민교육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효과적인 현장 적용과 실행, 평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동시에, 기존 프레임워크가 오늘날의 변화된 과제를 담아내기에 충분한지 성찰합니다. 성찰을 실천으로 전환하는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각자의 맥락에 맞는 해결책을 함께 구성하고, 회의장 밖에서도 지속가능한 구체적인 제안과 통찰을 도출하게 됩니다. (3A) 맥락 공동 설계: 다양한 현실에 맞는 세계시민교육 구상하기 - 청이엔(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강사) (3B) 성과 공동 설계: 세계시민교육의 변화와 성과 살펴보기 - 김희영(대전 삼천중학교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 에스더 케어(멜버른대학교 교육학부 교수급 연구원) (3C) 미래 공동 설계: 이미지 연극으로 세계시민교육의 미래 그려보기 - 레아 에스팔라도(필리핀 교육연구협회 선임 예술교사)	
15:40~16:10	휴식(커피/차 제공)	
16:10~17:10	기조 세션 4. 지금, 세계시민 ON 포토에세이 공모전 시상식 마지막 세션은 글로벌 담론의 중심에 서 있는 국내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시선을 담은 '지금, 세계시민 ON 포토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이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시상식은 사진과 에세이를 통해 세계시민의식의 핵심 가치를 풀어낸 수상자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시상자 - 임상우(대한민국 외교부 공공문화외교대사) - 김중훈(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	
17:10~17:30	폐회식	

붙임 2 주요 참가자 정보

사진	성명/ 소속/ 직책	정보
	현 천 유네스코 교육사무총장보	2026년 4월 유네스코 교육 사무총장보로 임명 * 글로벌 교육목표인 '교육 2030 의제(Education 2030 Agenda)'의 이행을 조율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총괄하고, 교육이 글로벌 의제의 최우선 과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략과 리더십 제시
	카이밍 청 홍콩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 홍콩대학교에서 교육대학장, 부총장, 총장 수석고문을 역임했으며,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 방문교수로 재직 - 중국·인도·아프리카 농촌 지역 현장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은행, 유네스코, 유니세프, 아시아개발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의 교육 프로젝트에 참여
	조셉 브라이언 말레켈라 변화를 위한 아프리카 리더십 이니셔티브 사무총장	2025년 12월 제1회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 청년 부문을 수상한 '변화를 위한 아프리카 리더십 이니셔티브 (Africa Leadership Initiatives for Impact, ALII)'의 대표 - 지역사회의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 문제에 대응하는 청년 주도 대화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세계시민 교육의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 중
	콘스탄사 몬테로 아그레 테나 숲학교 공동설립자	2025년 12월 제1회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 단체 부문을 수상한 '테나 숲학교(Bosque Escuela Tena)'의 공동설립자 - 숲을 단순한 배경이 아닌 살아 있는 스승으로 바라보고, 전통 지혜와 현대 교육방법을 결합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배움이 이루어지는 교육을 실천 중
	피터 은구레 주유네스코 케냐대표부 특명전권대사	- 현재 주유네스코 케냐대표부 특명전권대사로 고등교육 행정가 출신 외교관 - 케냐는 대한민국 주도로 출범한 유네스코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의 참여국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국제적 연대와 포용의 가치 확산에 협력 중
	미키 스기무라 소피아대학교 총장	- 현재 일본 소피아대학교 총장이자 비교·국제교육학 교수로, '인간의 존엄성·평화·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 유네스코 석좌로 활동 중 - 유엔대학교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등에서 지속 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분야의 연구·정책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2022년 유네스코 1974년 권고 개정 국제전문가그룹 위원으로 참여